모든 것을 '나'를 빼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자기 뿌리부터 보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으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끌어 가는 줄 아십시오. 차가 가려면 운전수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운전수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는 바로 양면을 다 움켜잡고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로 육신과 영원한 근본인 뿌리와, 즉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을 내는 법, 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지금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림살이가 바로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걸음을 걸어올 때나 일을 할 때나 고정되게 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그렇게 엄청나고 광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딴 종교에서는 마귀 소굴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감고 앉아서 그냥 귀신 놀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서나 앉으나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부처님 법에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눈을 감았으나 떴으나, 똥을 눌 때나 먹을 때나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수천수만의 생명들과 의식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수화풍도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쳐지니까, 화목하게 합쳐지니까 밝은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밝은 세상이 오고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를 못 믿겠거든 우리의 몸속을 한번 보십시오.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생명들이 그렇게 진화돼서 쫓고 쫓기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어 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이 돼서야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러분은 만날 각자 '내가 살고, 내가 줬고, 내가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즉 자생 중생들의 집합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요, 관리인입니다. 이 몸뚱이는 바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또 사대 성인들께서도, 많은 조사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얘,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가는데 중생들이 배 안에 잔뜩 탔으니 선장이 노를 똑바로 잘 저어서 나가야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수보살이 유마힐 거사한테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겠노라." 한 뜻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몸 안의 자생 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죠?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중생들을, 내 몸속의 중생들 병이 다 나아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깁니다. 내 자생 중생부터 제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평등공법 봉에 모두가 한자리를 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직결돼 있고 한도량에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력이나 금속이 어디든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각자 마음을 통해서 바로 몸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천백억의 보살로 화해서, 바로 천차만별의 응신으로 나투면서 천차만별의 중생들한테 자동적으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백억이라면 바로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묻지 마세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놔야만 합니다. 병에 걸려도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뚱이 속에서는 내면의 모두가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이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에서 통신을 받고 다 작용을 해 줍니다. 안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으로는 세포의 생명들이 화해서, 이 지구에서 레이더망으로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이 혹성과 같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전부 나가서 마음을 조정하고,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내 가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를 잘 조절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깥에서 세균성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서 벌써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면으로다 입력이 항상 돼야 되는데, 1년을 해 놓든지 2년을 해 놓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세균성을 막고, 또 들일 건 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체로 치는 역할을 합니다. 통신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파악해서 들이고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통신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이 세포의 모든 소임이라고 봅니다.

> **우리는 한 치도 에누리 없는**
>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입니까, 그게? 혼자 듣는 것입니까? 혼자 보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더불어 나인 고로 내가 혼자라는 걸 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 데다가 외부적으로도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한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없느니라.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나를 따르되 나를 믿지 말고,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알면 바로 과거의 부(父)를 현재의 자(子)가 상봉케 되느니라. 상봉케 된다면 바로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성 부처가 바로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바로 서로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일체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병풍 둘러치듯 둘러친 이 세상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느니라. 너만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너만큼 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둘이 아니니 바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얽히고설켜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욕을 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건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마음으로 잡아야지, 말로 몸을 잡으려고 한다면 몸이 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몸이 움죽거리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죽거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바로 몸이 움죽거리고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병이 나거나 일가친척이 병이 나거나 내 식구들이 병이 났어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 거를 알고 내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그게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마는 병이 나서 아팠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찰나찰나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십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내가 병이 나서 주인공에다 맡겨 놨을 때는 여기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통신처입니다, 통신처.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듯이,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되듯이, 내 주인공의 뜻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서 거기다 맡겼을 때는 바로 한 찰나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 중생들이 약사보살이 돼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인공! 당신만이 이거를 대치해서 해 나갈 수 있잖아!' 했을 때는 관세음이 되시고 '아이구, 명이 짧아서 어쩌나!'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칠성이 돼 주시고, 또는 '아이구, 좋은 데로 가야 할 텐데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인공에 맡겼을 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또 마음에 물리가 터지지 않아서 애를 쓰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동방의 아촉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둘 아니게 지켜볼 수 있는 관법을 잘 알아야지.' 한다면 바로 아미타가 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는 기묘한 법이 그렇게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여러분이 충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지금 금속이나 전력이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아니 쓰여지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가 되고 내가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용신이 돼 주고, 먼 길을 갈 때 바로 내면세계의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지신이 돼 준단 말입니다. 이거를 못 믿겠걸랑 한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때로는 아들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수만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남의 뿌리에다가 내 뿌리가 돼 달라고, 내 나무를 성장하게 해 주고 푸르르게 살게 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 내가 직접 '네 몸을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잘 끌고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한 가정에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국내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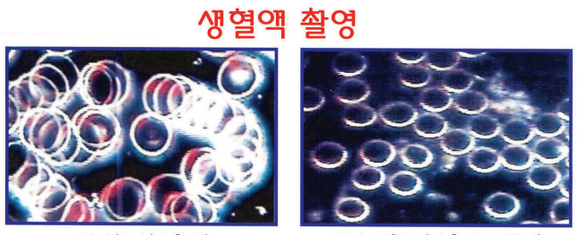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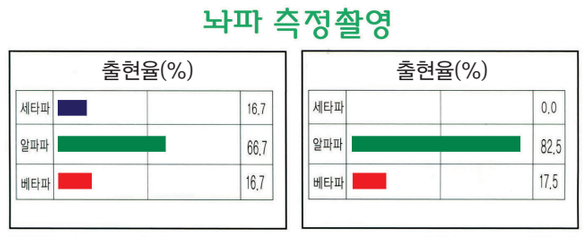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